



강세원 이사
(퓨리나코리아)

지난 달에 예상했듯이 4월부터는 본격적인 돼지공급 부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 간접적인 생산 및 시장지표를 보면 이러한 예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돼지사육두수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최근 전국사료 생산추세를 보면 양돈사료가 전 축종중에 가장 두드러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출하 예상량도 지난 겨울에서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설사병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급상황은 적어도 전월대비 5%정도의 돈가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측면에서 보면 원료부족 및 돈가 상승으로 수출지속세

사항이라 하겠다.

4월 중 지육시세는 kg당 2,900~3,000원의 평균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8월까지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돈가강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농가 입장에서 반드시 호재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돈가강세가 계속될 경우 국내 육가공업체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이것이 결국 양돈농가의 사업적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양돈가와 육가공업체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돈육을 공급하고 이

지육 kg당, 2,900~3,000원대 가격형성 예상

는 주춤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간 침체되어 있던 국내소비가 되살아 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돈육소비가 내수시장으로 옮길시 수입육과의 경합이 돈가에 영향하겠지만 백화점, 유통업체에 이어 정육점, 식당까지 이미 신선육소비가 급격히 자리잡고 있고 국산돈육에 대한 유통업체 및 소비자 선호가 워낙 강해 수입삼겹살이 돈가하락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 그러나 작년에 수입되었다가 시장적응에 실패한 수입냉장돈육이 이번 4월경에 다시 수입되어 수도권시장에서 판매 시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내소비자 기호에 얼마나 부응할지는 관심있게 지켜볼

에 따른 부가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일부 국내양돈장에서 발생된 바 있는 돈콜레라 발병사태는 국내 전체 양돈업계로 볼 때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돈콜레라 백신을 100% 접종하고 돈육품질을 높혀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된다. 돈가가 생산비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보다 장기적인 양돈경영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싶다. **양돈**



최동수 부장
(제일제당 육가공업무팀)

3월 초부터 국내 육가공업체들이 산지 원료돈 구매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돈가가 서서히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3월 중순부터는 3월 초에 비해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띄고 있어, 이러한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육판매의 큰 특징은 생육가격과 냉동육의 가격차가 거의 1,500원/kg에 이르고 있

후 돈가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 확실시 된다.

과연 현 돈가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어렵겠지만 9월까지의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육가공업체 원료구매 담당자 의견이고 보면, '99년 상반기 돈가가 양돈농가에 다소 유리한 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육가공 공장의 가공CAPA 증가로 원료돈 부족의 심화를 부추기고 있고, 현 국내 평균 구매요율 65%가 적어도 5월부터는 1% 이상 상승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향 후 등급제를 시행하는 가공장이 늘

4월 돈가는 2,800원~2,900원 수준에서 형성될 듯

어 한국산 식육방향이 생육으로 귀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돈육수출 또한 현 수준대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의 잔류물질 검사 강화, 대만우회 수출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돈육수출이 다소 축소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4월 돈가는 2,800원/kg~2,900원/kg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준의 돈가가 형성된다면 5월 출하두수는 부족할 것이라는 대다수 사람들의 전망과 함께 수입돈육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4월 이

어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등급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일부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능성 브랜드육이 점차 정착될 것이므로 양돈농가 입장에서 동일한 노동력 투입으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브랜드육에 있음을 잊지말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믿는다.

과거에도 경험했지만 고 돈가가 장기간 지속되면 다음에 올 저 돈가도 장기간 지속된 점을 명심하고 무계획적인 사육두수 증가보다는 양질의 돼지를 생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다. **양돈**



돼 지고기 소비시장이 미미하지만 어느정도 살아나고 있다. 특히 국내산과 수입산의 유통가격이 동반상승하는 시기를 맞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내산의 경우 산지 출하물량이 예년 이 시기에 비해 다소 줄어드는 경향도 나타나면서 도매시장 경락가격도 kg당 2천8백원~2천9백원으로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지 가격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00kg 두당 18만원대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호전된다고 해도 환절기를 맞으면서 농가들의 경영, 관리소홀로 인해 선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냉장육 브랜드육의 경우 kg당 8천3백원~8천7백원대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는 자체 판매장 또는 백화점 등을 통한 브랜드의 소비자 이미지가 지속이라는 이유에서도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육의 경우 나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난 2월~3월 초에 비해 kg당 1백원~2백원씩 각각 인상시켜 유통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육은 kg당 4천원~5천9백원대에 거래



권영철 국장
(미트저널 편집국)

소비시장 활성화, 유통가격 동반상승

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고 있다.

국내산의 경우 일부 유통업체들은 봄철 자금수요를 맞추기 위해 유통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중 유통가격에 비해 다소 낮은 가격에 대량물량을 유통시키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가격상승에 대비 비축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4~5월 돼지고기 유통시장에서는 가격의 급상승도 예고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모야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냉동육 기준 비브랜드육의 경우 삼겹살이 kg당 5천9백원~6천원대에 거래를 형성하고 있으며, 브랜드육 삼겹살은 kg당 6천7백원~7천원대를

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육의 경우 오는 4월이면 또 한 차례 가격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어 현재 수입육에 대한 비축이 들어가고 있는 등 국내산과 같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유통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 봄부터 국내산은 물론 수입 돼지고기 소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보면 산지 사정도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예상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유통업체들이 삼겹살 중심의 판매와 함께 자체 신상품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어 또다른 부분의 돼지고기 소비창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돈**